

01 교회소식

성령의 역사가 살아 있는 예배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통해 응답과 축복을 받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끝이 없는 권능의 제단

표적과 기사 없이는 도무지 믿지 않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는 권능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03 기획특집

참된 신뢰란 무엇인가?

신속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와의 신뢰도를 점검해 보자.

04 간증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청력이 살아난 노점업 집사와 임신 중 대형 화물차에 부딪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킴받은 몸골 덜거르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722호 2016년 1월 2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말씀과 권능, 천국 소망으로 변화되는 감동의 시간!

“GCN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만민이 함께해요”



우리 교회와 1만여 자·협력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기본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변화와 생명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영육 간에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 사진 상단에는 우리 교회 본당 예배 전경, 하단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강단 헌화, 찬양과 기도를 올려 드리는 성령 충만한 금요철야예배 2부, 예배 때마다 은혜와 감동의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예능위원회,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해외 목회자들의 충만한 모습.

성령의 역사가 살아 있는 교회는 예배도 살아 있다.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영광을 돌려 드리는 의식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이다. GCN 방송(www.gcntv.org)과 위성 및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와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는 모든 순서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 다해 드러진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국내의 손님들은 한결같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았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풀어 받은 생명의 말씀들이 아주 풍성하다는 점이다. 마음을 할례하여 영혼이 잘될 때라야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다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은 영적인 시원함을 얻는다.

미국에서 사역하며 목회의 한계를 느끼던 중, 인터넷에서 설교 검색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된 박영란 목사는 “그동안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는 말씀대로 살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록 목사님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 보여 주고 계십니다. 온전한 선과 사랑의 승함으로 이뤄진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대할 때마다, 저는 심한 통곡과 눈물

로 회개기도를 드리며 영적인 때를 벗기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이처럼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이 설교 말씀과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다양한 간증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설교 후 이어지는 이재록 목사의 ‘환자기도’로 국내외에서 수많은 성도가 응답받고 축복받아 간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만민교회 마릭사 빠레스 성도는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지 갈급하던 중 엔라세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사)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아 만민중앙교회의 지교회인 콜롬비아만민교회 성도가 되었지요. 당회장님의 설교는 깨어 있는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할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 권능이 나타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 권능으로 알레르기성 축농증과 자궁근종을 치료받았으며,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들도 건강해져 밝고 다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주 안에서 참 행복합니다.”라고 간증하였다.

또한 영국 율리아 성도는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왠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 하루에 두 차례씩 방송되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리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인터넷으로 만민중앙교

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3시 반에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아침 7시에 저녁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설교가 끝송이 같아 행복하기만 하였지요.”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문제를 해결 받은 율리아 성도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해하였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 예배는 천국을 연상케 하는 수준 높은 공연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천국 소망을 더해 주고 있다. 천여 명의 성도로 구성된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위원장 이희진 목사)는 주일 저녁예배와 금요철야예배 시 특송을 비롯 부활절 공연, 교회 창립 기념 행사와 성탄절 공연 등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대하 1:7) 하시며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은 물론 부와 재물과 존영까지 넘치게 주셨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다. 2016년에는 전 세계 만민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러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시편 62:11)

끝이 없는 권능의 제단

하셨습니다. ‘창조의 근본 된 권능’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이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능’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듯이 말씀으로 명하는 대로 역사되는 권능을 뜻하지요. 그때의 ‘빛’은 ‘창조의 근본 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2001년에 개최된 ‘필리핀 연합대성회’를 통해 창조의 근본 된 권능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2002년부터는 권능을 운용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조의 근본 된 권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이므로 영의 차원과 육의 차원의 공존을 이룰 때에 그 권능을 온전히 베풀 수 있고, 그동안 온 영으로 일군 것도 무로 돌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더해 주셨지요.

2. 창조의 근본 된 권능을 베풀기 위한 과정과 하나님의 섭리

2004년에는 영의 차원과 육의 차원의 공존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곧 1차원의 공간부터 4차원의 공간까지 알려 주셨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영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훈련이 일단락 지어질 즈음, 2008년 6월부터는 하나님의 ‘근본의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되었고, 2009년 1월에 이르러서는 50%까지 찾았지요. 그 결과 ‘복합적인 권능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차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역사로 맺혀진 가장 큰 열매는 3년에 걸친 12번의 이스라엘 선교로, 복음이 이스라엘로 회귀하리라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2010년에는 ‘멈추지 않는 권능’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는 ‘권능의 범위가 교계와 세계로 확대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감당해야 할 공의의 분량이 커졌다는 의미였지요. 그래서 제 몸은 기가 계속해서 빠져나가 심히도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장차 권능의 역사가 ‘폭발적인 권능’으로 나타날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권능’이었지요. 하

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폭발적인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 계속적으로 공의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제 몸의 기는 제로(0)에 가깝게 소진되었지요. 모든 육의 기를 빼내야 영의 기운을 채울 수 있고, 영의 기운이 100% 채워지면 영의 훈련에서 배운 대로 4차원의 공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권능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2012년에는 ‘크고 놀라운 권능’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시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이라고 덧붙여 주셨지요. 앞으로 교계 활동과 세계 교구화를 위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는 ‘권능’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시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바로 자유의지까지 쥐는 권능’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제단의 권능의 소식을 듣고 보는 이들이 스스로 자유의지 가운데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권능이지요.

마지막 때는 죄악이 관영하여 사람들의 마음도 악으로 질게 물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 주고, 심지어 주님처럼 물위를 걷는 장면을 방송으로 보여 준다 해도 오히려 부정하거나 반문하는 세상이 되었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는 해도 믿는 사람의 수가 적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권능이 크니까 두려움에 억지로 믿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스스로 자유의지 가운데 믿음을 택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쥐는 권능의 역사가 함께 따라야 참된 구원의 역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결국 2014년에는 ‘재창조의 역사’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이미 창조된 것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에서 최고 차원은 바로 죽은 영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도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권능,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역사이지요.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권능이 바로 2015년에 기도 제목으로 주신 ‘재창조의 권능’입니다.

3.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긴 재창조의 권능

‘재창조의 권능’이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근본의 소리로 이뤄지는 권능이지요. 이는 2000년에 알려 주신 ‘창조의 근본 된 권능’의 정의와 같습니다. 그런데 권능의 정의는 같으나 권능을 행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창조의 근본 된 권능’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단의 제2도약기가 시작된 2000년 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의 빛을 돌려주심으로 창조의 권능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5년의 세월 동안 스스로 근본의 빛을 운영할 수 있는 영의 공부와 영의 훈련을 시키시며 공의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2016년에는 ‘재창조의 권능’을 100% 완성할 수 있도록 ‘끝이 없는 권능의 제단’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권능이 끝이 없듯이 이 제단의 권능의 역사도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100% 완성된 재창조의 권능으로 앞으로 펼쳐 사역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제단은 개척 후 34년 동안 모든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실로 ‘만민’이라는 이름에 맞게 여러 방식과 형태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끝이 없는 권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단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에 끝이 없는 권능의 역사로 만민을 구원하며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낼 것입니다. 소중한 지체들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장차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광스런 ‘만민’의 일원으로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말씀하신 대로(요 14:12) 주님의 마음을 닦아 영혼 구원을 위해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친히 세우신 우리 제단은 어떻게 끝이 없는 권능의 역사를 베풀 수 있을까요?

1. 창조의 근본 된 권능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오늘날은 죄악이 심히 관영한 세대이므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기사와 표적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후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자 힘써 왔으며, 1982년 교회 개척 후에는 더욱 큰 권능을 사모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2000년에 ‘창조의 권능’에 대해 알려 주시면서 ‘창조의 근본 된 권능을 행하라’ 더 나아가 ‘최상의 창조의 근본 된 권능을 완성하라’ 말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영적 성장의 핵심, 신뢰도 체크!

‘신뢰(信賴)’란 무엇일까?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며,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신뢰가 아닌 양쪽 모두 서로 신뢰할 때 온전하다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신뢰로 하나 되면 영육 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과연 나는 주 안에서 신뢰로 하나 되어 있는지 다음 세 가지 분야로 점검해 보자.

하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말씀은 크게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당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신뢰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 혹여 어떤 손해를 보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변함없이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그 말씀에는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의 신분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 왕의 진미를 사양하였고,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었다. 하나님 뜻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직 순종만 하는 그들을 하나님 또한 신뢰하시기에 풀무불 속에서도 전혀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셨고 사자 굴에서도 보호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함으로 신뢰를 쌓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자녀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바란다.

둘!!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진정 믿고 있는가?”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정도는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 신뢰한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게 된다. 거룩하고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써며 주님처럼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한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비롯해 빌립이나

스데반 집사도 따르는 표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였다. 이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도 신뢰하셔서 능히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심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과 같이 온전한 신뢰관계로 주님과 하나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마음을 진리로 일구어야 한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요 15:7).

셋!!! “설교를 들을 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는 않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처럼 오늘날 여러 유형의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의 종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에 세우신 목자인 경우, 성도들이 신뢰하는 정도는 ‘증거하는 말씀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예배 시간에 ‘왜 꼭 저렇게 말씀하실까?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르네? 누가 저렇게 말씀드렸을까?’ 등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롬 8:7)이 떠오르거나 그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면 온전히 ‘아멘’ 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 감정이 상할 수도 있다. 반면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요, 목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속한 권능(시 62:11)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께서 목자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이처럼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면 항상 선으로 생각하며, 설령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에도 ‘저렇게 말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많은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선으로 생각할 때 당장은 깨닫지 못한다 해도 기도 중에 성령이 깨우쳐 주실 수 있고, 이런 체험들이 쌓임으로 목자에 대한 신뢰가 온전해진다. 목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주의 종이 나 일꾼을 신뢰할 수 있다.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오해하지 않으니 가까이 대할 수 있고 중요한 일도 믿고 맡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4절을 통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고백하였다.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신뢰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를 만나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이뤄갈 수 있다. 온전한 신뢰관계를 이루어 이 땅에서는 물론,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 ■ 믿음의 분량 1-3 ■ 천국 1-5 ■ 3차 영혼육 6-11 ■ 하나님의 사랑 ■ 공부 잘하는 비결 1 ■ 사랑장 1 ■ 심자가의 도 23-24 ■ 일곱영 2-3 ■ 요한계시록 강해 2-7 ■ 믿음을 척량하시니 19-24	GCN TV설교 ■ 내가 시행하리니 7-11 (이수진 목사) ■ 교만 3 (이미영 목사) ■ 생명과 평안 2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31 (이희선 목사) ■ 음기 강해 4 (신동초 목사) ■ 열재앙 19 (정규영 목사) ■ 목자의 공간 (이해천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3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36 ■ 내 마음의 찬양 25 ■ 창조와 과학 21 ■ English 11 ■ 모두 드려요 42 ■ 뷰티풀 라이프 9 ■ 즐거운 요리 3 ■ 흥겨운 소리 9 ■ 옛날 옛적에 3 ■ 플로리스트 13	해외성회 프로그램 ■ 독일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은 길 26 ■ 회상 (시즈) 9 ■ GCN HD 채널 ktolleh tv 882번
--	--	--	--	--

“40여 년간 잃었던 오른쪽 청력을 되찾았어요!”

노정엽 집사 (63세, 3세대 27교구)

2004년 7월,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부터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면 얼굴이 붓고 눈물이 흘렀으며, 목과 어깨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고 매년 봄만 되면 고질적인 허리 통증으로 20여 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환자기도를 받은 뒤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또한 건강을 되찾으니 직장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이후 집도 장만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어떤 충격을 받아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귀가 먹었느냐?”란 말을 자주 들곤 하였지만 가정 형편상 치료받지 못한 채 살아왔지요. 2012년 7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에 입원하여 특진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는 소생이 불가능하기에 수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쪽 귀로 들으며 살아왔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기도받아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야근을 해야 하는 직장생활로 인해 주일 외에 공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여 무언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중 창세기 강해, 생명의 씨, 십자가의 도 등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도’는 반복해 들으면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와 인간 경작의 섭리 등 하나님의 사랑과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깨우치며 신앙의 기초

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봄, 그날도 전철로 출근하면서 휴대폰을 통해 당회장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밖으로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폰이 느슨하게 꽂혀 소리가 밖으로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어폰을 통해 잘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찌된 일이지?’ 하면서도 무심코 지나쳤지요.



어느 날 갑자기 ‘선천성 농아들도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아 듣게 되는데 나도 청력이 회복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오른쪽 귀에만 꽂고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잘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후에 깨우친 사실이지만 출근길에 있었던 사건도 오른쪽 귀의 청력이 회복된 상황이라 이어폰을 통해 왼쪽 귀로 듣듯이 잘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하기에 수술조차도 할 수 없다는 병원 진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청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2015년 11월, 병원에서 오른쪽 귀의 청력을 검사한 결과,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뿐 아니라 저는 ‘2015 만민 하계수련회’에서도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18세에 왼쪽 발목 부분이 골절되었는데, 이후 왼쪽 종아리 부위에 부기가 빠지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양쪽 다리의 굵기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8월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이어진 은사집회 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 정상이 되었지요.

각종 질병과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축복은 물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후진하는 대형 화물차에 부딪혔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태아까지 지켜 주셨어요!” **덜거르 성도 (25세, 몽골만민교회)**

2015년 3월, 저는 할머니의 인도로 몽골에 있는 만민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된 일이 있었는데 지난 11월 20일, 오후 6시경의 일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친구와 함께 서있던 저는 갑자기 후진하던 대형 화물차에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미처 저를 보지 못한 운전기사는 엑셀을 밟으며 제 위로 지나가려고 했지요. 나중에 들어보니 운전기사는

‘바퀴에 무슨 큰 돌이 걸렸나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임신 3개월이었고, 그 순간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태중에 있는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순간에 벌어진 상황에 너무 당황하고 놀란 친구는 급히 사태를 수습하고 저를 병원으로 수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몸은 물론 태아에게도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할렐루야!

그날 사고 현장에서 저를 지켜본

친구와 병원의 담당 의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로 신기하네요!”라며 아주 놀라워하였습니다.

그 뒤 저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저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제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아이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며 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고 많은 세상에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명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톨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사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령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4)748-5777, 010-3747-5777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281-2468, 010-9773-701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임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